

그러한 백사장을 바라보면서, 일행은 1991년에 개통된 生月大橋(960m)를 건너면서 生月島の 풍경을 즐기는데 언덕 위에 큰 십자가가 보였다. 역시 숲은 키리스탄의 유적이다. 이곳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1,000여명 이상의 키리스탄이 대 행진을 했던 역사를 가진 크루스의 언덕공원(クルスの丘公園)이다. 1609년에 섬의 신도들의 지도자였던 니시겐카(西玄可)가 처형되고 매장된 곳을 신도들이 성지로서 지정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주변에 있던 큰 소나무들이 말라 죽었다. 그 소나무를 근처에 있는 야마다교회(山田教会) 강단의 십자가로 만들었다.

야마다교회는 1912년에 일본 교회 건축에서 유명한 테쯔카와요스케(鉄川与助)가 설계하고 시공한 벽돌교회이다. 교회 내부는 전세계에서 수집된 약 3만 마리의 나비 날개로 만들어진 액자로 장식되어 있는데, 직접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그리고 이 섬에서 살았던 수 많은 신도들의 수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섬의 전시관 겸 박물관(島の館; 平戸市生月町博物館)에서 숲은 키리스탄의 역사적 자료와 영상과 해설을 통하여 에도시대(江戸時代) 때는 고래를 잡아서 번창했었던 모습과 숲은 키리스탄의 잠복시대 때의 신앙 형태를 전하는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만나므로 배울 수 있었다.

☆☆☆☆☆☆

숙소로 돌아 온 일행은 저녁식사를 한 후에 조영석목사의 사회로 각 임원회와 총간사 보고를 가졌다. 교육위원회, 헌법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찬송가위원회, 사회위원회 순으로 계획과 안내와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위원회와 KCC에서는 새로운 개정입관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한일 양국어로 만들어진 안내장은 전국 교회에도 배포되었는데, 일부 수정판을 다시 배포할 예정이므로 교인들은 물론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도용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総幹事洪性完牧師는 福岡教会의 권영국목사에 대한 수술경과 보고와 더불어 계속적인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으며, 선교 협력 관계에 있는 PCUSA에서의 동성연애자에 대한 목사안수 문제, 새로운 한일찬송가의 발행이 지연되는 이유, 고시위원회의 관심사항, 岡崎教会 문제와 본국의 성결교단과의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계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

여러 보고에 이어서 장로 부총회장인 임영재 장로의 사회로 폐회예배가 있었다. 부총회장인 조중래 목사는 베드로전서 1:6-9로 [숨겨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조목사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난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면서, 인생의 궁극적 갈구는 영생이며, 영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것이 보화 중의 보화인데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자]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최초 선교사인 자비엘은 본국을 떠나 선교지로 간 후에 한번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암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회복되어 온 자신의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다.



마지막 날은 아리타야끼(有田焼)로 유명한 역사의 현장인 有田로 갔다. 이곳은 <일본의 도자기는 조선 도공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곳이다. 현장에서는 제 14대인 이참평(李參平, 日本名: 金ヶ江三兵衛)씨가 직접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었다. 초대 이참평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에 사가번(佐賀藩)의 타쿠(多久)를 통치하고 있던 곳에서 몇 년간 도자기를 만들다가, 보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조사하다가 아리타에서 일본 최초의 도광(陶鉱)을 발견하여 도자기를 만들다가 죽었으므로 큰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가 되었으며, 사후에도 묘비가 세워졌고, 도산신사(陶山神社)에도 도조(陶祖)로 안치되어 있다. 일행은 도광과 도자기 신사와 도자기를 판매하는 곳을 견학하며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고 느꼈다.

[나가사키 키리스탄 여행 제 3탄, 키리스탄의 역사를 배우자!]
(長崎キリスタンの旅、第3弾、キリスタンの歴史を学ぼう!) 라는 주제로 실시된 2012년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견학할 필요가 있는 일본의 선교 역사와 순교의 현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역사를 배우고 견학하면 현재의 일본선교 상황과 앞으로의 일본 선교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그래서 총회 교육위원회는 현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집을 만들어 공유하였으며, 현장의 전문 강사를 통한 학습에 이어서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느낌과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총회가 없는 해에 실시되는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를 통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믿음과 선교 방향, 고난을 함께 공유하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과 교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보고: 편집부)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子どもクラス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ッパ、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関西地方会> 京都東山伝道所

李元重牧師 委任式挙行

去る 6 月 17 日 (主) 午後 4 時より、京都大学 YMCA 学生会館にて、京都東山伝道所の李元重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礼拝は、臨時堂会長である朴龍洙牧師 (京都教会) の司会によって捧げられ、姜斗連長老 (大阪教会) が、第一ペトロ 5: 1~5 を朗読し、鄭然元牧師 (大阪教会) が「キリストの僕となって」という題で説教した。そして、京都東山伝道所の信徒一同が特別讃美を捧げた。



礼拝後、関西地方会会長である趙永哲牧師 (大阪北部教会) の司式によって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委任後、朴珍烈牧師 (平野教会) が勸勉を、総会を代表して金武士総会長、関西地方会を代表して金容賛長老 (高槻伝道所)、日本のキリスト教会からは府上征三牧師が、それぞれ祝辞を述べた。

さらに、全国の教会から届いた祝電を紹介してから、京都東山伝道所信徒から花束が贈呈された。その後、李元重牧師が答辞をした。そして、信徒代表として呉珉庚氏が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これからもお祈り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と挨拶した後、全聖三牧師 (布施教会) の祝祷で委任式を終えた。

李元重牧師は、2008 年 3 月から京都東山伝道所で説教牧師として奉仕をして来た。そして、第 63 回関西地方会総会において総会に加入し、今回の委任まで至った。京都東山伝道所は、1994 年創立以来、京都市東北地域への宣教の拠点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新しい連絡先は、以下の通りである。(〒 606-8216 京都府京都市左京区田中南北西浦町 90-3 TEL/FAX. 075-203-0424) (報告: 李元重)

豊かな味、豊かな心。

喜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創世記連続講解 (14)

尹宗銀 牧師
(横浜教会名誉牧師)



創世記 28 章

創世記 28 章の総主題は、「ヤコブがハラシ [Haran] に亡命する」ことである。

- ① 1- 5 節: イサクがヤコブをハラシへ送り出した。
- ② 6- 9 節: エサウはイシュマエルの娘と二重結婚する。
- ③ 10-15 節: ヤコブがベテル (神の家) [Bethel] で夢を見た。
- ④ 16-22 節: ヤコブの新しい経験と誓願。

本章は、ヤコブが新たに生まれた経験を記録した言葉である。ヤコブは、兄に対して犯した罪の結果、父母と故郷を離れて見知らぬ地方に亡命の旅をすることになった。後ろには恐怖があり、前には孤独があった。過去の罪と現在の悲哀を思い巡らしながら、親愛する父母と故郷と山河を離れることになった。罪の結果は、涙と苦痛である。彼の寂しい思いと悔悟の感情は、胸中を往来していた。父母に依存していた信仰から自由独立的信仰へ転向していた。

その夜、神は彼にあらわれて神と人との交通の道を示された。彼は、「先端が天まで達する階段が地に向かって伸びており、神の御使いたちがそれを上ったり下ったりしている」夢を見た。そして神は彼に祝福し、励ましの言葉で慰めた。ヤコブはベテルで、個人的に神を見る体験をした。

13-14 節では、選民の祖先としての彼に対する祝福であり、15 節は彼の個人に対する約束である。神は、彼と共におられて、約束を必ず実現なさる。彼は、神の臨在を知らなかったが、神は彼と共におられた。これは、ヤコブの生涯の中で最初の経験であった。神は彼に無条件に祝福をしたのであったが、ヤコブは条件付で誓願していた。

宣教協約締結 15 周年記念集会

教会の宣教課題としての隣人 - 平和の福音に生きて

교회의 선교과제로서의 이웃 - 평화의 복음으로 살아가서

「実に、キリストはわたしたちの平和であります。」

* 그는 우리의 동행이신 자라 - 에피소드 2-14

日時: 9月22日(金)
午前11時(受付10時半)

場所: 在日大韓基督教会・名古屋教会

<プログラム>

第1部 記念礼拝
・説教 金武士牧師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長)

委員会

第2部 交流会
・韓国無償ボランティアワークショップ
・発題: 金住清牧師 (在日大韓基督教会名古屋教会)
五十嵐善和牧師 (日本キリスト教会 茅ヶ崎教会)
・各教会紹介と全体討論

在日大韓基督教会 名古屋教会
〒450-0002 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http://www.kicj.org/jp/index.jsp
TEL:052-541-1969 E-mail: ogyc1628@kicj.or.jp

在日大韓基督教会・日本キリスト教会との宣教協約締結 15 周年記念集会在 11 月 23 日 (金、勤労感謝の日) に、名古屋教会で行われます。さる 7 月 10 日 (火)、東京の柏木教会で両教会の関係者が集まり、最後の準備会を終えました。

<西部地方会> 女性連合会 今年度 第1回 1日研修会開催

西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主催による、2012年度第1回目の1日研修会が、去る7月3日(火)、神戸教会にて開催された。開会礼拝は、李華順宣教部長の司会で始まり、韓世一牧師(神戸教会)より、「最高の祝福」(出エジプト33:12~17)と題するメッセージをした。

韓牧師は、「私たちは神の憐れみにより完成させられた者であり、神の働きを知り、共におられる神の後について行くことは最高の喜びである」とし、「神の働きに感謝する時、神は私たちに祝福して下さる。従順に、後について行くことは恵みであり、神の祝福が与えられる」と述べた。



続いて、李炫知会長が、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被災地、群山伝道所、福島の仮設住宅、山形ウリ教会等を訪問した貴重な報告をした。昼食は、神戸教会女性会が料理を奉仕した。続いて、第II部の講演に移り、金必順牧師(全国女性会総務)から、歴代の女性会会長の映像を紹介し、全国女性会を担って来た会長たちの苦勞を話し、2010年に60周年を迎えられたことへの感謝を述べた。

また、各局(宣教、教育、青年、社会、財政、後援)の活動について詳しい説明があり、各教会女性会の協力が全国女性会の活動を支えていることへの感謝があった。各教会女性会が、今回の講演を通して、其々の教会の女性会の活動にも生かせることが出来るよう祈り、閉会した。

(報告：賓景淑書記)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 (BANK) : 三菱 UFJ 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 (BRANCH) : 高田馬場支店 (TAKADANO-BABA)
- 種類 (SWIFT) : 普通預金 (BOTKJPJT)
- 口座 (A/C) : 053-1615275
- 名義 :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関東地方会> IT 牧会セミナー 강사는 아름다운교회 황인돈목사가



지난 7월 5일(목), 6일(금) 양일간 관동지방회에서는 교육부 주최로 목회자들을 위한 IT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된 세미나였다. 올해는 서울 구의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IT 목회에 관한 강의를 하는 황인돈 목사(예장 통합)가 강사로 봉사하였다.

먼저 조영석목사의 개최기도에 이어서 처음 참석한 교역자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후에 한성현목사(지방회장)가 강사를 소개하였다. 황목사는 인사에 이어서 현실 목회를 위하여 필요한 많은 사례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동영상 편집을 위한 방법들을 기초부터 천천히 강의하였다.

이틀 동안 밤 9시가 넘도록 연습과 실습을 한 결과 참석자 모두가 자기만의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동영상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교회에서의 활용법과 봉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어서 PPT에 관한 강의에서는 교인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실 목회에 적용되도록 지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이용하여 교회의 자료들과 설교 원고들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강의하였다.

황목사는 [동영상과 IT 목회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주제와 주제 제기와 목적과 절제가 중요하므로 동영상 이미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설교가 전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려는 주제를 찾는 것과 교인들과의 이해와 공유를 계속해 나가면 보다 효과적으로 목회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참석자들이 IT 목회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였다.(보고: 편집부)

<住所変更>

1. 一宮伝道所 新住所: 岐阜県各務原市成清 1-11
Tel 058-322-3917 Fax 058-322-3918
牧師館: 岐阜県岐阜市北一色 3-9-3 アルカディア北一色 106
(牧師携帯電話 090-9922-5137)
2. 京都東山伝道所 新住所
〒606-8216 京都府京都市左京区田中 西浦町 90-3
TEL/FAX. 075-203-0424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2012年9月1日(土) 第711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 金 武士・編集人 /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福音新聞)
info@kccj.jp (総会事務局)

2012 全国教役者・長老研修会 長崎 平戸市・生月島에서 開催

지난 7월 16일(月)부터 18일(水)까지 총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가 長崎県平戸・生月島(이키쓰키시마)에서 <키리스탄의 역사를 배우자>(キリスTanの歴史を学ぼう!)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개최되었다.



전국 교회에서 모인 교역자 장로 40여명은 먼저 이성우목사(교육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하였다. 총회장 김무사 목사는 요한계시록 2:8-11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스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대중 살지 말고 올바르게 충실하게 살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말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무서운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로 만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長崎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린 곳이지만, 그렇게 흘린 피는 세월이 흘러가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배우고 믿는 뜻 깊은 연수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설교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사카이노부오(坂井信夫)九州大学名誉教授가 [키리스탄사화 - 키리스탄의 역사를 배우자](キリスTan史話-キリスTanの歴史を学ぼう!)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하였다.坂井교수는 일본 키리스탄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신앙 생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근대 일본의 기독교와 生月の 숨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뜨거운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을 나누었다. 이어서 전체 기도회를 통하여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나누었다.

이론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기도를 나누는 다음날은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먼저 숙소 앞에 보이는 타비라야이자 사적공원(田平焼罪史跡公園)으로 갔다. 이곳은 이탈리아인 선교사인 카미로 콘스탄추오 신부가 1622년에 금교령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한 곳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일행은 관광 버스를 타고 <교회와 사원이 보이는 풍경>(教会と寺院が見える風景)으로 유명한 히라도 자비엘기념교회(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에 갔다. 일본 최초의 선교사인 스페인 출신의 프란시스코 자비엘(Xavier, Francisco de, 1506-1552) 신부는 1549년에 예수회 선교사로 일본으로 건너 와서 鹿兒島鹿와 平戸와 山口에서 선교하였기에 각각 세 개의 기념교회가 있다.

그는 성주(城主)의 아들로 태어나 도련님으로 자랐으며, 당시의 선교사들도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국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이국으로 선교를 갔던 것이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거나 죽어갔다.

일행은 히라도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카톨릭교회에 다니는 여교인이 가이드로 봉사해 준 관계로 당시와 이후의 여러 상황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히라도교회 교인들이 직접 만들어 준 빵과 음료수를 통하여 교인들과도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이어서 히라도 성(平戸城)과 부두를 산책하고 족탕을 즐기면서 당시의 역사와 숨결을 느꼈다. 이곳은 서양으로부터 빵과 담배, 페인트와 맥주, 고구마와 카스테라와 별사탕 등이 들어 온 곳이기도 하다.

각자가 자유롭게 점심을 해결한 후에 히모사시교회(紐差教会)로 갔다. 이 교회는 히라도 섬의 중앙에 위치한 언덕 위의 교회로서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이다. 기둥이 많지 않아서 외관보다는 큰 느낌을 받는 신비한 공간의 예배당으로 1885년에 목조 건물로 지어진 것을 1931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보수하였다. 당시 철근으로 지어진 교회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으며 입구에는 신사가 자리하고 있어서 <신사가 보이는 교회>(神社が見える教会)라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이어서 흰 백사장이 인상적인 히라도 키리스탄자료관(平戸キリスTan資料館)으로 갔다. 이곳은 박해를 피하여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을>로 불려 온 곳이다. 비교적 작은 자료관이지만 당시의 여러 자료와 신앙을 지켜 온 물품들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라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앞은 흰 백사장이 펼쳐져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순교의 피로 인하여 붉게 변할 정도로 참혹한 순교의 현장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한글로도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온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2,3면 계속) →